
I. 테마진단

◆ 미래 여성노인의 노후준비 실태와 시사점

오승연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 빈곤율은 45.1%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데, 이 중 여성 노인의 빈곤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

○ 여성 노인의 빈곤율은 47.2%로, 남성 노인의 빈곤율 41.8%보다 높게 나타남.¹⁾

○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이 매우 높아 76.6%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여성임.

-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중 여성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달함.²⁾

■ 과거 여성은 남편 혹은 성인 자녀를 통해 노후를 보장 받았으나, 가족 규범의 해체로 가족 내 노후보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여성의 노후준비가 더욱 중요해짐.

○ 부모 부양에 대한 의무감이 약화되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줄어들고 노인 단독 가구(독거노인 및 노인 부부가구)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2010년 65세 이상 1인 가구 및 부부가구는 각각 105만 6천 가구(34.2%), 103만 8천 가구(33.6%)로, 65세 이상 전체 가구의 67.8%를 차지하고 있음.

1)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OECD 평균 고령층 빈곤율은 17.1%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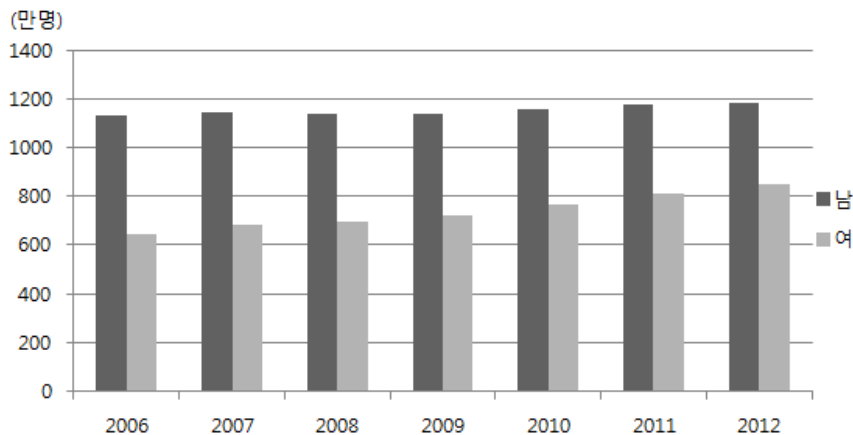
2)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2010~2035년』.

- 미혼과 이혼의 증가로 남성 가장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여성 가구주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는 반면, “부모 스스로 해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³⁾

■ 여성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노후소득의 원천이 될 연금 가입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 2012년 현재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약 85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나, 남성 약 1,180만 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이는 20~59세 전체 여성인구(약 1500만 명)의 56.5%에 해당하는 수치로 아직도 많은 여성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못함.

〈그림 1〉 성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 추이



자료: 국민연금공단(2012), 『국민연금통계연보』.

■ 여성의 노후준비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참여 여부와 더불어 혼인상태에 따른 노후준비 정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통계청(2013), 『2013 고령자통계』.

- 여성은 배우자에 대한 소득 의존도가 높아 배우자 유무에 따라 노후소득 준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됨.
- 여성 가구주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을 여성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남성 가구주 가구의 배우자 여성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고, 노후준비를 위한 여력 역시 부족함.
- 반면, 소위 “골드미스”라 불리는 미혼 여성 가구주의 경우는 교육과 소득수준이 높아 노후준비에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임.

■ 본고에서는 미래 여성 노인⁴⁾의 노후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노후준비 현황을 미시적, 거시적 수준에서 조사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함.

- 이를 위해 먼저 현 세대 여성 노인의 노후소득 구성 현황을 개관한 후,
- 여성의 혼인 상태별 분류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현 세대 여성노인의 노후소득 구성 현황

■ 65세 이상 여성 노인의 소득 구성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애 기간 동안 누적된 자산소득과 연금소득은 매우 낮게 나타남(〈표 1〉참조).

- 공적이전소득⁵⁾이 전체 소득의 33.2%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사적이전소득⁶⁾이 전체 소득의 30.9%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 노인의 부동산과 금융소득을 합한 자산소득은 전체 소득의 12.4%이며, 개인연금은 0.6%에 불과함.

4) 2012년 현재 24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함.

5) 공적이전소득의 대부분은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액임.

6) 가족(주로 성인 자녀)으로부터 이전받는 소득임.

〈표 1〉 65세 이상 여성노인의 소득 구성 현황(연간)

구분	공적이전	사적이전	근로	부동산	금융	개인연금	총소득
평균소득액(천 원)	1,381.1	1,284.6	948.2	384.2	134.9	22.9	4,155.8
구성비(%)	33.2	30.9	22.8	9.2	3.2	0.6	100

주: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이용한 결과임. 표는 65세 이상 노인 여성 2,337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임.
자료: 장미혜(2013) 표 1 재구성.

■ 노후 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연금 소득원(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 등)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55~79세 여성 노인 여성의 42.4%만이 연금 수령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연금 수령 경험이 있는 남성 노인의 비중은 51.9%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월 평균 연금수급액을 비교해 보면, 여성은 21만 원으로 남성(55만 원)의 약 40% 수준에 그침.
- 연금 수급 경험자 가운데 여성의 경우 “10만 원 미만” 연금액을 수령한 비중이 51.8%며, “10~25만 원 미만”의 비중이 30%에 달함.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에게 지급되는 이전소득인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하면 사실상 여성 노인들이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통해 충당하는 노후소득은 극히 미미한 수준임.

〈표 2〉 고령층(55~79세) 연금 수령 여부(2013년)

(단위: 천명, %)

구분		남자	구성비	여자	구성비	계	구성비
55~79세 전체 인구		5,098		5,819		10,917	
연금수령자*		2,646	100	2,469	100	5,115	100
월 평 균 연 금 수 령 액	10만 원 미만	580	21.9	1,280	51.8	1,860	36.4
	10~25만 원 미만	657	24.8	741	30.0	1,398	27.3
	25~50만 원 미만	634	24.0	292	11.8	926	18.1
	50~100만 원 미만	369	13.9	50	2.0	419	8.2
	100~150만 원 미만	106	4.0	50	2.0	155	3
	150만 원 이상	300	11.3	56	2.3	357	7
평균 수령액(만 원)		55		21		39	

주: * 모든 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 등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3), 『2013 고령자 통계』.

■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수령 현황을 보면, 2012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184만 명 수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대비 30.7%이며, 이 중 여성노인의 수급률은 20.3%로 남성 노인의 수급률 45.5%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음.⁷⁾

-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1%와 39%임.
-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만 자격이 되는 노령연금의 여성 수급자는 524,531명으로 남성(1,089,355명)의 48.2%에 불과하며, 1인당 평균 노령연금액은 남성의 59.8%에 불과함.
- 유족연금의 경우 여성이 전체 수급자의 89%이며, 남성의 노령연금액이 여성보다 많아 여성 노인의 1인당 유족연금 급여액이 남성 보다 1.5배 정도 큼.

〈표 3〉 65세 이상 국민연금 성별 수급자 수 및 급여액(2012년)

	수급자 수(명)			1인당 급여액(천원)		
	노령연금	유족연금	전체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전체 국민연금*
남	1,089,355	22,901	1,122,891	3,231	1,536	3,205
여	524,531	187,527	716,602	1,970	2,176	2,031
계	1,613,886	210,428	1,839,493	2,821	2,106	2,747

주: *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2012 국민연금 통계연보를 이용해 저자가 계산함.

■ 이처럼 여성의 노후 소득은 남성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길어 노후에 재원이 더 많이 요구되므로, 여성의 노후준비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 2012년 현재 여성의 평균수명은 84.64년으로 남성(77.95년)보다 약 7년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⁸⁾

7) 국민연금공단(2013).

8) 통계청(2013), 생명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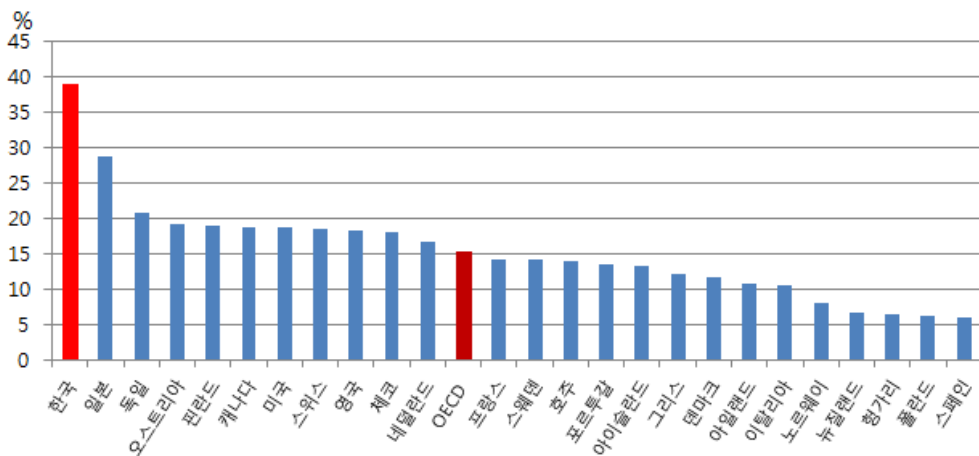
3. 미래 여성노인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노후준비

■ 노후준비는 청·장년기에 벌어들인 소득과 자산축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성은 경제 활동참가율이 낮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높은 비정규직 비율, 낮은 임금 소득으로 남성에 비해 노후준비 여력이 부족함.

-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는 39%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크며, OECD 평균(15.3%)의 2.5배에 이름.
- 2012년 현재 여성의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35.3%로 남성(20.7%)에 비해 높게 나타남.⁹⁾

〈그림 2〉 OECD 국가들의 남녀 임금 격차 비교(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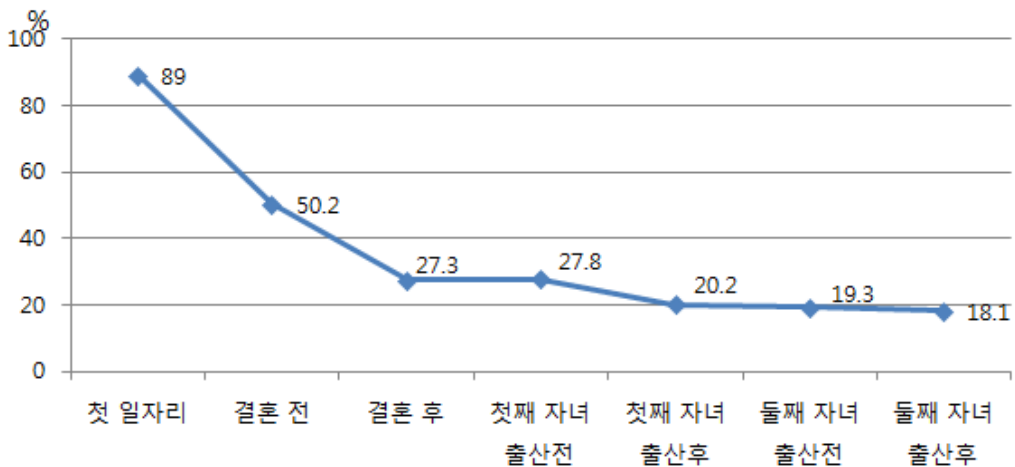
자료: OECD(2013), Employment Data.

■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성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대거 이탈하는 시기는 첫째 자녀 출산 보다 이른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9) 통계청, 『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 결혼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결혼 6개월 전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기혼자에게 불리한 직장 분위기와 근로여건 등에 기인함.
- 기혼여성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은 출산·양육 지원정책 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일 수 있음.¹⁰⁾

〈그림 3〉 결혼과 출산에 의한 여성의 고용률 변화



주: 고용률은 관련 응답자를 모집단으로 할 때 고용자 수의 비율을 의미함. 첫 일자리의 경우 전체 여성이 모집단이며, 첫째 자녀 출산의 경우는 결혼한 여성이 모집단이 됨.
 자료: 이혜원(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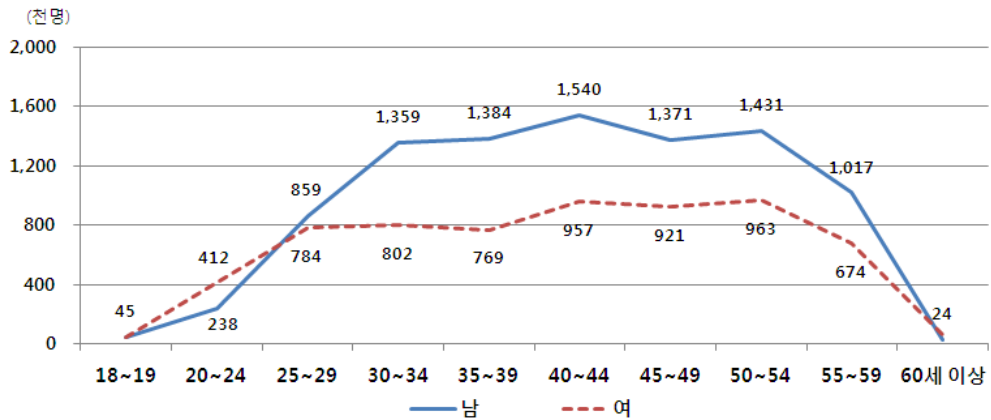
■ 실제로 여성의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면, 초혼 연령시점인 30대부터 국민연금 가입이 정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¹¹⁾

- 25~29세에는 남성과 여성의 가입자 수가 비슷하나, 30대에 들어서 여성의 가입자 수는 그대로인 반면, 남성의 가입자 수는 급격히 증가해 남녀의 가입률 격차가 커지고 있음.
- 40대부터 50대 중반까지 가입률이 소폭 상승하는 것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된 시점에서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때문임.

10) 이혜원(2014).

11) 2012년 여성의 초혼연령은 29.4세임.

〈그림 4〉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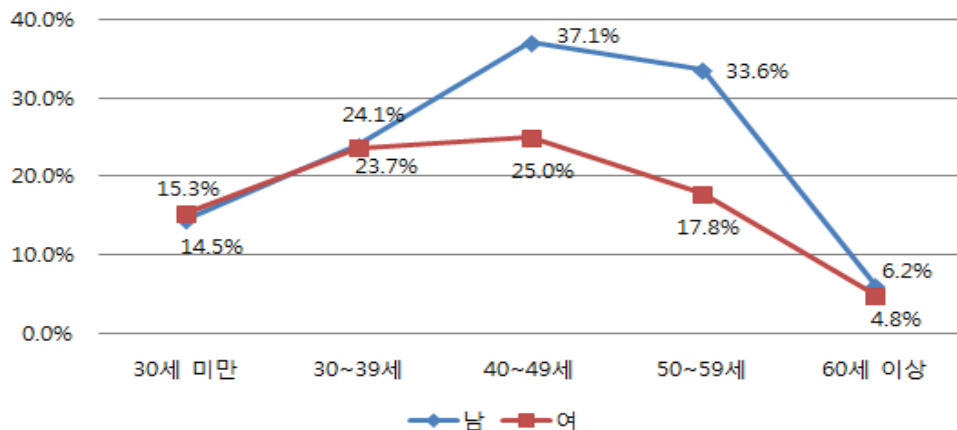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2013), 『국민연금통계연보』.

■ 결혼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임금근로자의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률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30대까지는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가입률을 보이다가 40대에 들어 여성의 가입률은 정체하는 반면, 남성 가입률이 증가하면서 격차가 벌어짐.

○ 임금 근로자의 개인연금의 연령별 가입률 차이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남녀 가입률 격차가 벌어지는 시점은 국민연금의 경우 30대인 반면, 개인연금은 40대임.

〈그림 5〉 근로소득자의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율(2012년)



주: 근로소득자 중 과세대상자만 포함. 가입률은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개인연금 가입자 비율.
 자료: 국세청(2011), 『국세통계연보』.

■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률에서 성별 차이가 나는 것과 달리 비적격 개인연금은 여성 가입자가 남성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말 기준으로 세제적격 연금저축 가입자 수는 3,394천명, 비적격 연금가입자는 5,456천명, 동시가입자는 926천명으로 집계되며, 중복가입을 배제하면 약 800만 명 정도가 가입해 있음.¹²⁾
- 전체 개인연금(세제적격과 비적격 모두 포함)의 남성과 여성의 가입자 수와 가입률은 각각 3,968명(15.6%), 4,034명(15.9%)으로 여성이 약간 많으나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¹³⁾
- 앞서 살펴본 세제적격 연금저축의 경우 여성의 가입률이 남성에 크게 못 미쳤으나 전체 개인연금의 남녀 가입률이 비슷한 점을 감안하면, 세제비적격 연금은 주로 비소득자 여성(전업주부) 명의로 가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소득이 없는 여성의 경우 수급단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적격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임.

(표 4) 성별 개인연금 가입률(2012년)

(단위: 천명,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가입자 수 ¹⁾	3,968	4,034	8,001
총인구 ²⁾	25,504	25,444	50,948
가입률	15.6	15.9	15.7

주: 1) 생명보험은 2012. 12월 말, 손해보험은 2013. 3월 말 기준으로 산출.

2) 인구는 2012년 말 주민등록인구, 통계청.

자료: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4. 1. 16), “2012년 개인연금 가입 현황 분석”.

나.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후준비

■ 배우자 유무에 따른 노후준비 차이를 살펴보면, 유배우 고령자의 절반(50.9%)이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 무배우 고령자는 23.8%만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13) 가입자 수는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 연금 모두 포함하며 중복가입을 배제하고 산출한 값임.

- 유배우 고령자의 노후준비 방법에서 가장 주요한 수단이 남성은 국민연금이었으며 여성은 예·적금인 것으로 나타남.

〈표 5〉 고령자의 노후준비방법(2011년)

(단위: %)

구분	준비하고 있음							준비하고 있지 않음				
		국민연금	기타공적연금	사적연금	예금적금	부동산운용	기타 ¹⁾		아직생각안함	앞으로준비할계획	준비능력없음	자녀에게의탁
고령자 (65세 이상)	40.1	31.8	11.1	10.8	27.5	13.6	5.2	59.9	4.3	4.1	54.8	36.8
유배우 고령자	50.9	30.1	12.0	10.5	27.2	14.6	5.6	49.1	6.6	6.5	58.7	28.2
남자	58.0	34.4	11.5	9.4	24.3	14.7	5.7	42.0	6.5	7.7	55.8	30.1
여자	40.5	21.2	12.9	12.9	33.3	14.4	5.3	59.5	6.6	5.3	61.8	26.3
무배우 고령자	23.8	37.3	8.4	11.6	28.4	10.1	4.2	76.2	2.2	1.7	51.0	45.1

주: 1) '퇴직금', '주식·채권 등' 포함.

자료: 통계청(2013), 『2013 고령자통계』.

■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는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빈곤층에 포함될 확률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¹⁴⁾

-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복지패널조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가구주 가정이 1년 만에 빈곤층에 포함될 확률은 13.1%인 반면, 남성 가구주 가정은 4.3%임.
- 가장 큰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는 것인데, 여성 가구주 대부분이 자녀 양육을 병행하므로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을 택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이혼한 여성의 경우 사회적인 편견으로 사회활동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기 집이 있던 여성 가장의 72.2%는 6년 뒤에 전·월세에 사는 것으로 조사됨.

14) 김은하(2013).

■ 평균수명의 증가와 미혼 및 이혼의 증가로 여성 가구주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노후 빈곤 해소에 있어 노후준비의 취약계층인 여성 가구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2013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가구주 가구 수는 498만 가구로 전체 가구(1,820만 6천 가구)의 27.4%를 차지함.¹⁵⁾

○ 또한 여성 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18.5%에서 2013년 27.4%, 2020년 30.8%, 2030년 3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¹⁶⁾

다. 이혼 및 사별에 따른 노후대비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무배우 여성 가구주에 비해 경제적 여유가 있는 편이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무배우자가 되는 경우 독자적인 노후소득 준비가 어렵다는 것이 큰 위험요인임.

○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노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득원은 상속재산이나 유족연금 혹은 정부 지원금임.

■ 따라서 이혼 시 여성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이나 사적연금(퇴직, 개인연금)의 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

○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이혼 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조기 사망 및 수급기간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얻지 못했을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¹⁷⁾

○ 퇴직금의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미 수령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미래에 수령할 퇴직금의 경우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재산분할 대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음.¹⁸⁾

15) 통계청,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16)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0~2035』.

17) 장미혜(2013).

18) 이상우 외(2014).

■ 사별 시 상속재산 역시 홀로 남은 배우자의 중요한 소득원인데, 현 상속법에 따르면 자녀가 많을수록 생존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재산이 줄어드는 구조임.

-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들 각 1씩임.
-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받는 상속분은 재산의 50%에 못 미치며, 이혼에 비해 재산형성에 더 오래 기여해온 사별이 자녀 수와 상관없이 남편 재산의 절반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혼에 비해 불리해질 수 있는 모순이 존재함.
- 최근 법무부는 남겨진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의 권리를 상속보다는 재산분할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4. 여성의 혼인 상태별 분류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

가. 가구주 여부 및 혼인 상태별 개인 특성

■ 여기에서는 여성의 가구주 여부 및 혼인상태별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정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여성의 특성에 따른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5~60세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 특성별 공적, 사적 연금 가입 현황을 조사함.
- 본고에서는 노동패널 15차 자료(2012년)를 이용하였으며, 가구주와 가구주의 배우자 개인정보를 가구 정보와 매칭시켜 조사대상 자료를 구축함.

■ 여성을 가구주 여부와 혼인상태에 따라 분류해서 노후준비 실태를 비교함.

- 먼저 가구주 여부에 따라 여성 가구주와 여성 배우자(남성 가구주의 배우자)로 나누고, 여성 가구주는 그 혼인 상태에 따라 미혼인 경우와 이혼(별거 포함) 및 사별을 경험한 여성 가구주로 나눔.¹⁹⁾

- 여성을 세 집단(여성 배우자, 미혼 여성 가구주, 이혼·사별 여성 가구주)으로 분류함.

- 조사대상에 포함된 여성 배우자, 미혼 여성 가구주, 이혼·사별 여성 가구주는 각각 3,108명(85.6%), 170명(4.7%), 352명(9.7%)임.
- 여성의 연령은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혼인, 출산, 양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가족의 형성 및 확장기(25~44세)와 수축기(45~60세)로 나누어 분류함.

■ 동일 연령대끼리 비교했을 때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은 미혼 여성 가구주이며 이혼·사별한 여성 가구주가 가장 낮음.

- 미혼 여성 가구주의 대졸(2년제 포함)과 석사 이상 학력 비중은 각각 61.5%와 38.1%로 가장 높은 수준임.
- 대졸자 비중을 비교해보면, 25~44세 연령구간에서는 여성 배우자의 대졸자 비중이 여성 가구주(이혼 및 사별) 비중에 비해 세 배 이상 높고, 45~60세 구간에서는 두 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여성 배우자의 절반 정도가 비경제활동인구이며, 미혼 여성 가구주의 상용직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 배우자의 경우 25~44세 연령대의 53%와 45~60세의 42.1%가 전업주부임.
- 임신, 일용직에서는 이혼 및 사별 여성 가구주의 비중이 가장 높음.
- 교육수준과 일자리 형태를 비교해볼 때,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9) 여성 가구주 가운데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남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아 여성 배우자의 특성과 비슷하므로 따로 보고하지 않음.

〈표 6〉 가구주 여부 및 혼인상태별 여성의 개인특성

(단위: 명, %)

구분	여성 배우자(남성 가구주)		미혼 여성 가구주		이혼 · 사별 여성 가구주	
	25~44세	45~60세	25~44세	45~60세	25~44세	45~60세
총인원	1,579	1,529	149	21	70	282
평균연령	44.4세		35.1세		50.8세	
교육수준						
고졸 이하	764(48.4)	1,318(86.2)	49(33.1)	9(42.9)	58(82.9)	261(92.6)
대졸 (2, 4년제)	777(49.2)	191(12.5)	92(61.5)	8(38.1)	11(15.7)	18(6.4)
석사 이상	38(2.4)	20(1.3)	8(5.4)	4(19.0)	1(1.4)	3(1.1)
일자리형태						
상용	444(28.1)	302(19.8)	94(63.1)	9(42.9)	34(48.6)	75(26.6)
임시, 일용	144(9.1)	218(14.3)	21(14.1)	5(23.8)	17(24.3)	66(23.4)
자영업	105(6.6)	154(10.1)	12(8.1)	4(19.0)	9(12.9)	62(22.0)
무급가족 종사자	49(3.1)	211(13.8)	-	-	-	2(0.7)
비경활 ¹⁾	837(53.0)	644(42.1)	22(14.8)	3(14.3)	10(14.3)	77(27.3)
평균소득						
개인소득 (만 원)	2,080	1,832	2,249	3,064	1,909	1,686
가구소득 (만 원)	4,931	5,443	2,227	3,128	2,205	2,541

주: 1)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전업주부.

2) 괄호 안은 비중을 나타냄.

자료: 15차 노동패널을 이용해 저자가 계산함.

■ 여성의 평균 개인소득을 비교해보면 미혼 여성 가구주의 개인 소득이 가장 높고 이혼 및 사별 여성 가구주의 소득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가구단위의 평균 소득에서는 남성 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여성 가구주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
- 미혼 여성 가구주의 경우는 부양가족이 없으므로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실질소득이 무조건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식 양육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이혼·사별 여성 가구주의 경우는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실질 가구 소득으로도 열악한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여성 배우자와 이혼·사별 여성 가구주는 모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개인 소득이 감소하고 있으나 미혼 여성 가구주의 경우는 개인 소득이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미혼 여성 가구주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 고소득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 없이 꾸준히 경력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나. 노후준비 실태: 공사연금 가입현황

■ 노동패널은 가구 단위에서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²⁰⁾의 가입여부 및 납입액을, 개인 데이터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먼저 가구 단위의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가구주가 남성인 여성 배우자 집단의 가입률과 연금 납입액이 여성 가구주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 남성 가구주 가구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여성 배우자의 연령대가 25~44세에서는 86.7%, 45~60에서는 74%, 국민연금 납입액은 각각 159만 원과 140만 원임.
- 여성 가구주 가구에서는 미혼여성이 이혼·사별 여성에 비해 높은 국민연금 가입률과 납입액을 보여주고 있음.

■ 가구의 개인연금 가입 현황을 보면, 가구주가 남성인 여성 배우자 집단의 가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남성 가구주 가구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여성 배우자의 연령대별로 각각 16.7%와 10.5%인 반면, 이혼·사별 여성 가구주 가구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8.6%와 3.6%에 지나지 않음.
- 미혼 여성 가구주 가구의 소득은 남성 가구주 가구소득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연금에 가입한 가구들의 평균 납입액은 비슷한 수준인데, 이는 부양 가족에 대한 지출이 없어 상대적으로 노후준비 여력이 높기 때문임.

■ 여성 개인의 노후준비로 공적연금 가입률을 살펴보면, 미혼 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여성 배우자의 가입률이 가장 낮음.

20) 4차 조사부터 개인연금 가입여부 및 연금 납입액을 가구 단위에서 조사하고 있음.

- 여성 배우자의 낮은 가입률은 전업주부가 많기 때문임.
- 이혼·사별 여성 가구주 본인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미혼 여성 가구주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노후준비에 열악한 상황임.

〈표 7〉 가구주 여부 및 혼인상태별 여성의 공사연금 가입현황

(단위: 만 원)

구분	여성 배우자 (남성 가구주)		미혼 여성 가구주		이혼·사별 여성 가구주	
	25~44세	45~60세	25~44세	45~60세	25~44세	45~60세
가구 단위						
국민연금 가입률	86.7%	74.0%	69.1%	42.9%	50.0%	54.8%
국민연금 가입가구 평균 납입액	159	140	82	64	46	59
개인연금 가입률 ¹⁾	16.7%	10.5%	9.3%	4.8%	8.6%	3.6%
개인연금 가입가구 평균 납입액	430	523	428	840 ²⁾	426	260
개인 단위						
공적연금 가입률 ³⁾	27.9%	19.2%	60.4%	38.1%	38.6%	23.8%

주: 1)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비적격 연금 모두 포함됨.

2) 45~60세 미혼 여성 가구주의 개인연금 납입액이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데이터 수가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아님.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 포함. 개인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주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

자료: 제15차 노동패널을 이용해 산정함.

■ 여성의 가구주 여부 및 혼인상태별 노후준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여성 배우자는 여성 가구에 비해 독자적인 노후준비는 부족하나, 가구 차원에서는 남성 가구주 가구의 공적, 사적 연금 가입률이 여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남.
- 이혼·사별 여성 가구주는 교육, 고용, 소득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공사연금 가입률과 납입액 역시 낮아 노후준비의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 미혼 여성 가구주의 경우 다른 여성에 비해 높은 교육수준 및 소득을 가지고 있으며, 노후준비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을 쓰고 있음을 보여줌.

■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가구에서 젊은 세대일수록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 비중이 높게 나타나 노후준비 의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집단별 평균연령이 미혼 여성 가구주가 35.1세, 여성 배우자가 44.4세, 그리고 이혼 및 사별 여성 가구주가 50.8세로, 집단에 따른 차이를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미혼일 때는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가, 혼인하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가장인 남편에 노후준비를 의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며, 이혼이나 사별을 겪게 되면서 가족에 의한 노후보장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짐.

5. 시사점

■ 여성의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통한 여성 본인의 연금가입이 중요하며, 이혼이나 사별을 경험한 여성 가구주는 노후준비에 있어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알 수 있음.

- 같은 여성 가구주라 하더라도 미혼인지, 이혼이나 사별을 했는지에 따라 노후준비 정도가 매우 다르므로 여성의 개인 특성 및 혼인상태별 차이점을 반영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여성의 노후빈곤을 완화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위해서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취약계층인 여성 가구주, 특히 여성 한 부모(싱글맘) 가구에 대한 우선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

■ 여성 스스로의 노후준비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유배우 여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일·가정 양립정책과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차별을 줄이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여성의 연금 가입을 장려하는 다양한 유인 정책도 필요함.

■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는 소득 및 가입기간을 반영해서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여성 노동은 시간제나 자영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남성들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는 대안이 필요함.²¹⁾

21) 장미혜(2013).

-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에 기반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비례하여 수급자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참여율 및 참여 기간이 짧은 여성들에게 불리함.
-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연금 급여율 산정과 수급기준을 완화시켜 최저연금을 보장해주는 방향의 개혁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득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을 가진 본인에 국한되어 전업주부는 혜택을 볼 수 없는데, 전업주부에 대한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미국에는 전업주부를 위한 배우자 IRA제도가 있어서 남편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50세 미만의 경우 연간 5,500달러, 50세 이상의 경우 6,500달러,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8,000달러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²²⁾

■ 현재 국민연금에만 적용되고 있는 분할연금 제도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²³⁾

■ 생존 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시키는 법 개정을 통해 여성 노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시킬 수 있음.

- 최근 민법 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 재산의 50%를 우선 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014년 1월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임.
- 하지만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지나치게 많이 가게 되면 가업승계가 불안해지고, 황혼 재혼한 배우자에게 너무 많은 유산이 상속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 선취분(배우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재산) 대상 재산을 ‘혼인 중에 증가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게 되면 재혼을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증가한 것만 대상이 되므로 황혼 재혼에 대한 자녀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2) 이때 개인소득이 납부액보다 작지 않아야 함.

23) 자세한 내용은 이상우 외(2014) 참조.

〈참 고 문 헌〉

국민연금관리공단(2013), 『국민연금 통계연보』.

국세청(2011), 『국세통계연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3. 8. 6),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김경아(2010), 「여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확대 방안」, 국민연금연구원.

김은하(2013), 「여성 가구주 가구의 사회적 배제 위험 양상에 관한 연구」, 『제5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보험개발원 보도자료(2014. 1. 16), “2012년 개인연금 가입 현황 분석”.

이상우 · 김동겸(2014), 「부부 이혼 시 퇴직급여 재산분할제 도입 방안」, 『KiRi Weekly』.

이혜원(2014),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기혼 여성의 노동공급 변화」, 『재정포럼 현안분석』.

장미혜(2013), 「여성노인의 생활실태와 빈곤해소 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06호.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2010~2035년』.

_____(2013a), 『2013 고령자통계』.

_____(2013b), 『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_____(2013c),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OECD Publishing, Paris.

_____(2011), *Employment Data*.